

# 전북 완주·전주 통합 논의 활발...전남은 제자리 걸음

여수·순천·광양, 행정통합 담보  
목포·신안, 단체장 공백에 중단  
완주·전주, 갈등 속 본격 공론화  
청주·창원 통합 이후 외형 확장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라남도 내 통합 논의는 완주·전주와 달리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전북 완주와 전주가 찬반 논란 속에서 통합특례시 추진을 공식화하며 공론화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남에서는 통합 논의가 눈에 띄게 주춤한 모습이다.

## ●여수·순천·광양 “경제동맹 한계”

여수·순천·광양은 2000년대 초반부터 행정통합 논의가 간헐적으로 제기돼왔다. 광양만권 경제권을 중심으로 각 도시 간 생활권이 겹치는 점, 선거구 조정 필요성, 산업 연계성 등을 기반으로 세 차례 이상 통합 논의가 부상했지만, 매번 실현되지 못했다.

가장 최근의 흐름은 2023년 이후 본격화된 ‘경제동맹’ 논의다. 순천시는 여수·광양과 함께 산업위기 대응, 광역교통망 확충, 관광·의료 인프라 연계 등 공동 이

슈 해결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지난 4월에는 ‘광양만권 공동선언’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특히 노관규 순천시장은 “3개 도시가 30만~50만 인구의 지방거점 특례시 기준에 부합한다”며 “경제동맹을 넘어서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수와 광양은 한 발짝 떨어져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3여 통합 이후 겪은 혼란이 아직 남아 있다”며 “시내버스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동일 조건으로 누리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정인화 광양시장도 “현실적 공동 과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메가시티는 개념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세 도시 간 ‘경제동맹’에는 합의했지만, 행정통합이라는 제도적 통합에는 분명한 온도차가 존재한다. 순천이 적극적으로 통합의 명분과 기대효과를 설파하고 있음에도, 여수·광양은 주민 공감대 부족과 내부 정치 부담 등을 이유로 거리를 두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들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민선 9기 이전까지 가시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

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목포·신안 통합... 단체장 공백에 올스톱

목포·신안의 통합은 여수·순천·광양보다 오히려 구체적인 계획과 수치가 마련됐던 사례다.

양 시·군은 2023년 ‘민간 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통합 효과 분석 용역을 실시했고, 지난 2024년 7월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고용 창출 3676명, 신규 취업 5251명, 연간 관광객 2200만명 증가, 행정편익 9735억원, 총 경제적 파급효과 1조9565억원이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목포·신안은 지난 3월 19일 관광·경제·복지·민간교류 등 4대 분야 24개 협력사업을 담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2026년 7월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전라남도도와 행안부에 공식 건의를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뒤인 지난 3월 27일, 양 단체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통합 추진은 사실상 멈췄고, 공식 절차는 전무한 상태다.

최근까지도 민간 주도로 토론회나 농산

물 교류운동 등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제도적 통합 논의는 발이 묶였다. 더욱이 목포와 신안 간 입장 차도 뚜렷하다.

고석규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장은 “협력력은 최고의 생존 전략”이라며 통합의 국경과제화를 강조했지만, 주장배 신안군통합대책위원장은 “용역 당시에도 신안 주민 65%가 반대했다. 실질적 이익과 신뢰가 먼저”라고 반박했다.

선관위가 내년 6월까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예정인 만큼, 새 시장·군수가 들어서기 전까지 공식적인 통합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 ●통합 통해 인구·경제규모 속

통합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린 성공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충북 청주다.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이후, 청주의 예산은 2조3353억원(2019년 기준)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4위를 기록했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통합 전인 2013년 16조2322억원에서 2016년 28조2058억원으로 42.4% 급증했다. 오송과 오창은 생명과학·과학산업단지로 변모하며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마산·진해와의 통합으로

인구 110만의 ‘메머드 지자체’로 재편됐다. 지역내총생산 33조원, 산업도시로서의 입지, 대규모 투자유치 등 외형적 성장세가 뚜렷하다. 일부 지역 갈등과 정치적 이견은 존재하지만, 통합으로 인한 도시 위상 제고와 경제 효과는 분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 완주군과 전주시는 여전히 통합 갈등을 보이고 있지만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완주·전주의 통합이 성사되면 특례시 지정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이에 따라 특례시 내에서 공공시설 이전, 완주와 전주를 잇는 SOC사업, 관광·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면 특례시 지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시사의 권한을 대폭 특례시로 이양해 더 많은 자율성과 다양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사의 권한이 과감하게 통합시에 이양됨에 따라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혜·조진용 기자

## 목포시, 소통버스 운영 고충민원 직접 듣는다

### 내일 권익위 조사관 6명 배치

전라남도 목포시가 소통버스 운영을 통해 국민 제안과 고충민원 청취에 나섰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목포시청 4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가 운영된다.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한 현장 중심 소통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의 제안을 직접 청취하고 상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장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전문 조사관 6명이 배치되어 민원 상담과 접수를 진행하며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가 주요 민원 관련 현장을 방문해 지역현안과 의견을 직접 살필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과 민원은 실현가능성을 검

토해 국정과제에 반영되거나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번 소통버스 운영은 호남권의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목포시민은 물론 인근 시·군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행사 당일(오전 10~오후 3시) 목포시청 4층 회의실을 방문해 제안·민원신청서를 작성·접수한 후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목포시장 권한대행 조석훈 부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담긴 자리인 만큼, 우리 지역 현안도 함께 논의되고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가 시민 여러분의 제안과 불편 사항을 전달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 목포해경, 항 내 선저폐수 불법 배출 어선 적발

### “지속적인 감시 단속 강화”

전라남도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목포시 남항부두에서 선저폐수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혐의로 어선 A호(9.77톤, 연안자망)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주요 어종의 금어기가 해제되는 조업 성수기를 맞아 항·포구 집중 순찰 활동을 벌이던 중 정박 중인 A호 주변 해상에 기름띠가 퍼져 있는 현장을 발견하고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호는 선저폐수(선박 밑바닥에 고인 유성 혼합물)를 기관실에 설치된 자동 수위 조절 잠수펌프를 사용해 해상에 무단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의로 기름을 바다에 배출했을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



선저폐수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혐의로 적발된 어선. 목포해경 제공

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기름이나 오염물질을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최근 목포시가 외달도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모래사장 등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 목포시 제공

## 외달도 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환경정화 활동

최근 전라남도 목포시가 오는 12일 개장을 앞두고 외달도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과 해변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정화활동은 지난달 30일 목포시 관광과 직원들이 직접 외달도에 입도해 해수욕장·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모래사장에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이번 활동과 함께 해수욕장 대형 그늘막 정비, 해수공급시설 보완, 샤워장 등 편의시설 정비를 모두 완료해 개장 기간 동안 외달도를 찾는 관광객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 여수시, 내년부터 ‘현금 없는 시내버스’ 운영

전라남도 여수시는 내년 1월1일부터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어르신 무료 버스’, ‘청소년 100원 버스’ 등으로 교통카드 이용이 보편화되고 현금 사용률이 5.9%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현금 승차로 인한 안전사고와

운행 지연을 예방하고 운수업체의 현금요구금 유지관리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또 내년부터 26년 만에 전면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적용함에 따라 카드단말기에 축적된 버스 이용 정보로 노선을 수정·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는 목포여객선터미널에서 하루 4회 왕복 운행하는 여객선을 통해 입도할 수 있으며 소요 시간은 약 50분(6km거리)이다.

외달도는 다도해 정청해역의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보석 같은 섬으로 고요한 바다 풍경 속에서 전북, 충남 등 목포 특유의 보양식을 맛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힐링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대상은 섬 지역을 포함한 72개 노선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포함해 총 194대에 달한다.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 내 부착된 안내서를 통해 계좌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거나 일정 금액이 충전된 선불카드(5000~6500원, 카드비용 포함)를 승무원으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